

안녕하세요. 내손오입니다.

먼저 저희 잔치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과 여사님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소감문을 쓰려고 하니 어떤 말부터 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시간을 더듬어 보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게 지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아, 기억에서 지워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도박문제가 안이라도 문제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도박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도박이 아닌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힘든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글에서 본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무게의 고통을 주시는데, 본인들이 그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느끼는 무게는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글은 제가 힘들 때 마다 생각하는 글입니다.

남편이 도박문제를 일으켜 힘들게 한 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같은 경험을 하셨으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지로 될 거라 믿고, 끊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내 남편은 다를 거라는 생각에 또 믿고 해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으로 아니 지하로 떨어지고 나니 의지와 믿음 만으로 끊어지는 질병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며,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모임에 나올 때마다 울면서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른 선생님과 여사님들의 소감문을 들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올라옵니다. 나도 저런 힘든 과정이 있었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니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모임에서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위대한 신께 맡기라고 합니다. 저는 무력했으므로 12단계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상황에 찾아왔기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가족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잘 지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지키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족으로써 지켜야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모임 안에서 기르고 실천하도록 말씀드리지만 매우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바닥 아니 지하 몇 층 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올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모임에 참석했는데 여사님들이 웃으면서 힘든데 잘 오셨다. 우리 같이 잘 이겨 나가자고 말씀하시며 교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킬 게 아무것도 없고,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교본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와서 그런지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모임에 나와서는 마음 편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올 당시 저는 남편이 도박을 끊기 위해 나왔다고 보다는 제가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모임에서 배운 것은 남편이 도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삶은 공동 책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저지른 잘못된 일은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야 했는데, 다 잃고 나니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보통 협심자가 바닥을 쳐야 끊어야지 하는 의지가 생긴다고 하는데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도 바닥을 쳐야 공동의존에서 벗어나 협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 잃고 와서 실천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저에게는 단점이자 장점이었으니까요. 단도박은 시작되었지만, 고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단도박을 한다고 금방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갑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뒤돌아보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저 나름의 방법으로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저에게는 살면서 그동안 남편이 저 축해 놓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복주머니 안에서 남편에게 느꼈던 고마운 것을 하나씩 꺼내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친정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일이 안되면 술을 드시고 사고를 치시면 뒤통수까지 남편이 아무 말없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6년이 지났지만, 살아 계시는 동안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장인에 대해 불평이나 싫은 소리 공치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남편은 복주머니를 채워 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복주머니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 힘든 시간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에는 친정 식구들과 친한 언니, 친구, 가족모임 여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모임 여사님들의 권유로 중독 공부를 했으며, 공부함으로써 중독이란 어떤 질병이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으며, 배움을 통해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독에 대해 공부하면 느낀 점은 중독에서 회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꼭 중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 기다려주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나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남편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이 알아서 단도박을 하는 것이지 제가 단도박을 하라 말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회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임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든 안 하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 남편이 도박을 하든 안 하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공동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년 단도박을 하고 있는 가족모임의 선배로써 좋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초심자도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을 갖고 계속 공부하고 봉사하며 노력해 나가려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단도박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내손김선생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도박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